

日本 天海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Tenkai Edition in Japan

曹 炯 鎭 (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天海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 2. 天海版의 概要 | 6. 天海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
| 3. 天海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 7. 結 論 |
| 4. 天海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참고문헌> |

<초 목>

- (1) 天海版이란 天海가 1637년부터 1648년 사이에 東京 寛永寺에서 목활자로 간행한 1453部の『大藏經』을 지칭한다.
- (2) 活字의 재질은 목재이다. 製作技術 수준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함은 물론, 서체도 매우 세련되어 상중급이다.
-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매우 정연하다. 빼뺏어진 문자는 매우 드물고, 墨色 濃淡은 매우 균일하다. 교정도 충실하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
- (4) 印出技術은 목색의 농담 차이, 墨汁의 번짐, 이중 인출 등이 매우 드물 만큼 균정하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
- (5) 印刷技術 수준은 일본 고활자판을 대표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상중급을 보이고 있다.

要語: 日本 天海版, 고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ABSTRACT>

- (1) The Tenkai edition refers to 1453 editions of *complete collection of buddhist sturas* printed in wooden types by Tenkai in Kangeizi, Tokyo for 12 years from 1637 to 1648.
-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wood. The type-making technique sufficiently shows script writing style and the types are highly refined. Its technical quality is upper-middle grade.
- (3) The typesetting technique is highly advanced, with 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There are few skewed characters, and the tone of ink color is very consistent. The corrections are also precise. The technical quality is upper-middle grade.
- (4) The brushing technique is highly uniformly, with little variance in ink color thickness, very few spreads of chinese ink, and rare cases of double printing. The technical quality is upper-middle grade.
- (5) The level of printing technique shows a very high level of upper-middle grade, which can represent Japan's finest early typography.

Key words: Japanese Tenkai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printing technique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교양학부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8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8년 12월 8일
서지학연구, 제76집, 25-52,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6.25]

1. 緒 論

본 연구는 일본 天台宗의 大僧正 慈眼大師 天海가 江戸시대 초기에 간행한 고활자본, 즉 天海版 고활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의 목록에 저록된 것을 따랐다.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활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天海版의 개요·활자의 제작기술·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출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¹⁾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天海版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판본학 연구에서 서영은 필수적이다. 저작권 문제로 정식 출판물에 수록하기에는 시간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한국서지학회의 발표논집에 수록한 서영²⁾을 참고하기 바란다.

2. 天海版의 概要³⁾

2.1 慈眼大師 天海

2.1.1 人物 天海

江戸시대(徳川 시대, 1603-1867) 이전부터 叡山の 부흥⁴⁾의 주역을 맡았던 인물 중 하나로 天台宗의 大僧正 慈眼大師 天海(1536-1643)라는 승려가 있다.

天海는 天正 18년(1590) 11월 1일 江戸城에서 처음 徳川家康를 알현하고, 川越의 喜多院을 하사 받았다. 이때부터 徳川 家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慶長 12년(1607) 京都 교외의 比叡山 東塔 南光坊에 입주하였고, 家康의 명으로 山門探題執行에 임명되어 山門 諸堂의 부흥에 진력하였다. 조선 사절로 조선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1)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2) 曹炯鎭, “日本 天海(Tenkai)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2018년 한국서지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발표논집)』 (2018. 11. 2), 80-96.

3) 東京都 教育廳 生涯學習部 文化課編, 『寛永寺及び子院所藏文化財總合調査報告書(上) 石造遺物聖教典籍篇』 (東京: 東京都 教育廳 生涯學習部 文化課, 1999).; 寛永寺 教化部編, 『寛永寺』 (東京: 東叡山 寛永寺, 1993).; 滋賀縣 教育委員會 事務局 文化財保護課編, 『延暦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本編)』 (大津: 滋賀縣教育委員會, 2000).; 三井田妙久, “宗存版木活字について,” 『叡山學院研究紀要』 23(2001. 3), 67-83.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4) 元龜 2년(1571) 京都 교외 比叡山 지역의 대형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3,000여 가람의 건축물과 서적 등을 복구하는 불사를 지칭한다. 齋藤彦松, “宗存版の研究,” 『同志社大學圖書館學會』 3(1960. 12), 5-6.

慶長 18년(1613) 日光寺 別堂가 되었다. 元和 원년(1615) 後陽成天皇로부터 天台의 餼鬻을 하사 받았다. 元和 2년(1616) 日光 輪王寺 門跡을 설치하여, 이듬해 개방하였다.

元和 2년(1616) 後陽成天皇로부터 궁중의 御殿을 하사받고, 山下의 坂本로 이축하였다(후의 滋賀院).

元和 3년(1617) 8월 26일 後陽成院이 사망하자, 天海가 一實神道の 의식으로 久能山에서 日光山으로 운구하였다. 天海는 川越 喜多院에 입주하였다.

元和 4년(1618) 江戸城 紅葉山에서 東照廟가 낙성되자, 宗存을 스승으로 모셨다.

寛永 2년(1625) 江戸 忍岡(上野)에 東叡山 寛永寺를 개창하였다.

寛永14년(1637) 天海版 『大藏經』⁵⁾을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寛永 20년(1643) 10월 2일 『大藏經』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향년 108세로 입적하여, 10월 17일 日光山 내 大黒山廟에 안장되었다.

慶安 원년(1648) 『大藏經』 완성 후 慈眼大師라는 諡號를 받았다.

2.1.2 天海版 『大藏經』

일본 고찰자관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으로 天海版 『大藏經』이 있다. 天海가 『大藏經』을 간행하게 된 동기는 元龜 2년(1571) 9월 京都 교외 比叡山 지역의 대형 화재로 인하여, 여기에 소재한 3,000여 사람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서적까지도 모두 소실되는 참사였다. 이를 신속하게 복구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하여 宗存과 天海 등이 활자를 이용하여 『大藏經』 등을 간행하게 되었다.

天海版 『大藏經』은 慈眼大師 天海가 寛永14년(1637) 3월 17일부터 慶安 원년(1648) 4월 17일⁶⁾까지 12년간에 걸쳐서,⁷⁾ 江戸 上野 東叡山 寛永寺를 거점으로 간행한 665函, 1453部, 6323卷을 지칭한다.⁸⁾ 寛永寺版이라고도 불린다. 일본 최초로 완성된 『大藏經』으로, 일본 문화사상 일대 간행 사업이다. 일본 인쇄사상 획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발원주는 南光坊 天海이고, 주요 저본은 중국의 (南宋)思溪版(思溪法寶資福禪寺本)이며, 일부는 (元)杭州版과 (明)萬曆版을 사용하였다.

간행 부수는 30부 또는 100부 설이 있다.⁹⁾

天海版 『大藏經』을 간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출판 팀은 약 100팀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은 팀당 매월 11종 48권 정도를 간행하였다.

『大藏經』의 간행은 天海 이전에도 宗存을 비롯하여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막대한 경비와

5) 일본은 『一切經』이라고도 한다.

6) 일설에는 3월 10일. 寛永寺 教化部編(1993), ‘天海版一切經の内觀音經と木活字心經組版’ 條.

7) 실제 소요 기간은 11년 1개월. 徳川家康의 33周忌.

8) 이는 권말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통계다. 실사 통계는 665函, 1454部, 5781卷, 5771帖. 滋賀縣 教育委員會 事務局 文化財保護課編(2000), 20.

9) 瀧善成, “天海版・鐵眼版重刻・補訂一特大般若經-,” 『佛教史研究』, 5(1971. 3), 70.; 寛永寺 教化部編(1993), 36.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좌절되었다. 스승으로 모셨던 宗存의 宗存版『大藏經』간행에도
관여한 天海는 宗存版에 주목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자료가 있다. 宗存版『顯戒論』의 간기는
“元和三年八月中旬”인데, 이 각권 말에 다음과 같이 묵서되어 있다.

右上中下三卷者天海大
僧正依仰感得之早
元和三^丁_丑年九月日實祐

이는 현존 宗存版에서 이 이상 간행일에 접근한 識語를 가진 것은 없으므로 天海가 宗存版에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 이러한 경험이 있던 天海는 마침 德川家康(1542-1616), 德川秀忠
(1579-1632), 德川家光(1604-1651)으로 이어지는 德川 家 3대 장군의 귀의를 받았던 터이므로, 『大藏
經』을 완성하기 위하여 江戸 幕府 특히 德川家光의 원조를 받아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江戸시대 말기인 天保년간(1830-1843)에 활자 보각과 함께 『仁王護國般若波羅蜜經』(天保 4년,
1833) ·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天保 6년, 1835) · 『法華經神力品』 · 『藥師經』 등을
간행하였다.¹¹⁾ 1942년에는 『法華經普門品』을 인쇄하였다.

간행 후, 종파를 불문하고 전국 사찰에 기증되었다. 오늘날에도 京都의 西本願寺, 青蓮院, 毘沙門堂,
仁和寺, 本國寺, 滋賀의 叡山文庫(2부), 福井의 永平寺, 長野의 皆善寺, 日光의 輪王寺, 東京의 本門寺,
寛永寺(和歌山 雲蓋院 舊藏)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일본 최초이면서 유일한 목활자본 『大藏經』이
다. 그러나 일본에서 최초로 『大藏經』을 간행한 것이 天海라는 사실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다.

2.1.3 天海版 木活字

天海版 『大藏經』의 간행에 사용된 목활자는 현재 東京 寛永寺 開山堂의 前庭에 건축된 地藏堂
안에 기타 활자 상자 · 관목류 등과 함께 소장되어 있다. 이 활자는 “東叡山輪王寺門跡藏版木目錄”
에도 기록되어 있다.

특히 “堂前庭寶藏在”라고 주어진 목록 “東叡山輪王寺門跡藏版木目錄”에는 “部類分せるもの
十箱”와 “部類分せさるもの十五箱”라는 주기가 있다.

寛永寺는 1994년부터 天海版 목활자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행하였다. 1998년부터는 實踐女子
大學의 渡邊守邦 교수를 연구 대표자로 한 文部省 科學研究費에 의한 학술연구로서 조사가 시행되
었다.¹²⁾ 조사 결과 현존 天海版 목활자의 수량은 268,044개이다.¹³⁾

10) 齋藤彦松(1960), 26.

11) 水上文義, “天海版一切經木活字の特色,” 『印度學佛教學研究』 제51권 제1호(2002. 12), 211.; 寛永寺編, 『慈眼
大師全集』(東京: 寛永寺, 1916), 上257.

12) 渡邊守邦編, 『寛永寺藏天海版木活字を中心とした出版文化財の調査・分析・保存に関する總合的研究』, 2002.

13) 水上文義(2002), 209. 실물 목활자에 관한 연구는 차후 발표 예정.

2.1.4 天海藏

天海藏은 滋眼大師 天海의 소장 전적에 붙여진 명칭으로 3곳에 소장되어 있다.

天海는 평생 研鑽에 진력하였다. 오늘날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東叡山・比叡山・日光山の 3처에 소장된 天海藏이라고 불리는 방대한 장서가 있다.

(1) 東叡山 寬永寺 소장 장서는 애석하게도 彰義隊의 전쟁 등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실되었다. 남아있는 전적은 勸學院에 있었는데, 大正大學으로 발전하면서, 현재 大正大學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2) 比叡山の 장서는 叡山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3) 日光山の 장서도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日光山 輪王寺의 것을 보면 佛敎書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이밖에 세계 유일의 중국에서 출판된 소설이라든가, 最古의 필사본 『神皇正統記』 등은 물론, 內典(佛書)과 外典(일반서)에 걸쳐 놀랄 만큼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日光山 輪王寺 天海藏에 포함되어 있는 天台宗系의 고찰자관으로는 元和 5년(1619)경부터 元和 7년(1621)경까지의 것이 알려져 있다. 예를들면 『止觀義例』・『法華肝要略注秀句集』・『釋門自鏡集』 등으로 대부분이 四周單邊, 無界, 10행20자의 판식으로, 인출에 동원된 활자도 동일하다. 시대적으로 보아서, 東叡山 寬永寺가 개창되기 이전에 川越 喜多院에 거주하던 天海를 중심으로 한 關東의 天台僧의 개관사업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江戸시대 초기 關東 지역의 서적 간행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간행한 많은 淨土敎 고찰자관 불서는 거의 인멸되었는데, 다수가 天海藏에 소장되어 있어서 그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¹⁴⁾

더욱 더 놀랄 만한 것은 天海가 실제로 끈기 있게 각 방면에 의뢰하여 “行記” 등의 귀중한 佛書를 수집한 일이다. 즉 이러한 서적의 대부분에는 天海의 의뢰를 받아서 필사본을 작성한 취지의 後書가 보이고, 그 위에 天海는 매 책마다에 몸소 “天海”라고 서명하거나 “天海藏”의 도장을 날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여 天海는 수집한 서적을 하나씩 살펴봤던 것으로 판단된다.

書信과 畫贊도 많이 남겼지만, 이른바 鑑賞用的 책 등은 모두 필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도 天海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다. 天海의 저술로는 『東照大權現緣起』・『返音抄』・『一實神道秘決』 등이 전하고 있다.

2.2 天海版의 數量과 版式

2.2.1 天海版의 數量

天海版 『大藏經』의 수량은 665함, 1453부, 6323권이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실사한 판본은 17종이며, 서영을 참고한 것은 3종(2종은 실사 판본과 중복)이다. 실사 대상은 열람을 개방하고 있는 소장처의 판본에서 선택하였다. 이들의 간행 연대

14) 藤堂祐範, 『淨土敎古活字版圖錄』(京都: 藤堂祐範, 1934), 解説 22-23.

는 고루 분포되어 있다.

<표 1> 天海版 古活字本「大藏經」실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¹⁵⁾	비고
1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	10-5	寬永18年(1641)天海版木活字印本	(3)309-209, ②
2	廣弘明集	30-30	寬永14年(1637)天海版木活字印本	(3)311-59, ¹⁶⁾ (9)184-131 ¹⁷⁾ , (11)圖313, ①
3	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	4-4	天海版木活字印本	(1)WA7-144 ¹⁸⁾
4	金七十論	3-2	寬永14年(1637)天海版木活字印本	(1)WA7-222, YD古106, (11)圖311, ①
5	大般涅槃經	40-40	寬永年間(1624-1643)天海版木活字印本	(5)110X-20, ¹⁹⁾
6	大方等大集經	30-30	寬永15年(1638)天海版木活字印本	(4)31-38-413
7	大乘大方等日藏經	10-	寬永19年(1642)天海版木活字印本	②
8	大乘入楞伽經	7-7	寬永17年(1640)天海版木活字印本	(1)WA7-62
9	大智度論	100-49	寬永17年(1640)天海版木活字印本	(1)WA7-108, ²⁰⁾ (3)310-41, (4)31-25-381
10	摩訶般若波羅蜜經	30-30 附音釋	寬永18年(1641)天海版木活字印本	(8)Aoo-4164 ²¹⁾
11	妙法蓮華經	8-8	正保4年(1647)天海版木活字印本	(5)110X-187, ²²⁾ (9)183-1297, ²³⁾ (12)'天海版一切經の内觀音經 と木活字心經組版'
12	別譯雜阿含經	16-	寬永17年(1640)天海版木活字印本	②
13	(佛說)梵網經	2-1	寬永20年(1643)天海版木活字印本	(11)圖472, ①
14	悲華經	10-10	寬永21年(1644)天海版木活字印本	(3)309-210
15	維摩詰所說經	3-3	寬永15年(1638)天海版木活字印本	(2)三Ab55
16	一般涅槃經	40-40	天海版木活字印本	(9)183-191 ²⁴⁾
17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寬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	5-5	慶安원년(1948)天海版木活字印本	(10)特060-4(86)
18	一切經音義	25-12	慶安원년(1948)天海版木活字印本	(10)特262-25(85)
19	正法華經	10-	寬永15年(1638)天海版木活字印本	②
20	諸經要集	20-20	寬永15年(1638)天海版木活字印本	(1)WA7-83, ²⁵⁾ (11)圖355
21	增壹阿含經	50-25 附音釋	寬永16年(1639)天海版木活字印本	(8)Aoo-6009
22	集古今佛道論衡實錄	4, 續1-5	寬永15年(1638)天海版木活字印本	(6)余兵7, ②
23	弘明集	14-14	寬永14年(1637)天海版木活字印本	(7)別置-甲-61, ①
24	華嚴經	80-	寬永18年(1641)天海版木活字印本	④

비고: 판본의 소장처 또는 출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실선 밑줄, 서영 참고 판본에는 점선 밑줄.

(1) = (日本)國會圖書館, (2) = 東洋文庫, (3) = 內閣文庫, (4) = 大東急紀念文庫, (5) = 慶應義塾大學圖書館, (6) = 大谷大學圖書館(京都), (7) =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8) = 東京大學總合圖書館, (9) = 天理圖書館, (10) = 京都府立總合資料館, (11) = 「寬永版書目并圖版」, (12) = 「寬永寺」.

15) 일본의 판본사항 저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채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채刊行'의 의미다.

이들 실사자의 간행 년도는 寛永년간(1624-1643)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天海版 『大藏經』의 간행이 慶安 원년(1648)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보면 고루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의 크기는 2~3권의 소형에서 100권의 대형 불경까지 다양하다.

2.2.2 天海版의 版式 상 特徵

실사자 17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영이나 문헌 자료는 분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서술하지 않고 제각각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天海版 이해에 필요한 요소만 참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2.2.1 表紙 題簽 書名

표지는 현재 상태를 조사하였으며, 개장된 것일 수 있다. 개장된 경우는 당연히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제침 서명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6종(『(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金七十論』·『大智度論』·『妙法蓮華經』·『悲華經』·『增壹阿含經』), 제침 없이 표지에 묵서한 경우가 6종(『大般涅槃經』·『大方等大集經』·『大乘入楞伽經』·『維摩詰所說經』·『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增壹阿含經』)이다. 『大智度論』은 광곽을 인쇄한 제침에 서명을 묵서하였고, 제침이 탈락된 경우는 표지에 묵서하였다. 『妙法蓮華經』은 사주쌍변 광곽을 인쇄한 제침을 표지 중앙에 붙였다. 『增壹阿含經』은 제침 서명이 좌상귀에 있고, 표지 묵서 서명이 중앙에 있다. 『大乘入楞伽經』은 제1책은 표지 서명이 없다. 『維摩詰所說經』은 서명을 감색 표지에 백서하였다. 『大乘入楞伽經』과 『妙法蓮華經』은 표지를 개장하였다.

본서명을 대체로 쓰고 있는데, 『妙法蓮華經』은 “普門品”으로, 『維摩詰所說經』은 “維摩經”으로,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 印本’으로 저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16) 권3·17의 2책 결락.
- 17) 권3은 필사본으로 보충.
- 18) 권1의 1帖만 소장.
- 19) 권25의 1帖만 소장.
- 20) 권5~6의 1책 결락.
- 21) 권22-25·30의 5책만 소장.
- 22)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第25의 1帖만 소장.
- 23) 간행 년도를 “寛永正保年間”으로 저록하였다.
- 24) 권39의 1帖만 소장.
- 25) 권10의 제40엽과 권18의 제1~10, 12~17, 27~31엽은 결락.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은 “印行目錄” 등으로 약서명을 썼다.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의 제2책과 제5책은 약서명도 생략하였다. 『增壹阿含經』은 본서명을 쓰되 “壹”을 표지 서명에는 “一”로 썼다.

표지 서명이 없는 경우도 6종(『廣弘明集』·『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摩訶般若波羅蜜經』·『一切經音義』·『諸經要集』·『弘明集』)이다.

권차 또는 책차가 서명 아래에 없는 경우는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妙法蓮華經』·『悲華經』 등이다. 그 외에는 책차가 있는데, “卷” 또는 “卷第”와 함께 책차를 표시한 경우는 『大般涅槃經』·『大方等大集經』 등이고, “卷” 또는 “卷第” 표시 없이 책차만 표시한 경우는 『金七十論』·『大乘入楞伽經』·『大智度論』·『維摩詰所說經』 등이다.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의 제1책은 “一”로만, 제3책과 제4책은 “卷第”도 표시하였다. 『增壹阿含經』은 제첩 서명에는 “卷第” 없이 책차만 표시하였고, 표지 목서에는 권차를 “卷第”와 함께 “一二”·“三四” 등으로 표시하였다. 『大方等大集經』은 제1책의 책차 아래에 “共三十卷”으로 총 권수를 표시하였다. 우하귀에는 “天海藏”이라고 서명되어 있다.

2.2.2.2 匡廓 형식

모든 天海版 고활자본이 상하단변, 좌우무변으로 동일하다. 이는 『大藏經』 간행이라는 사업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결과로 보인다.

좌우에 변란이 없는 경우는 권자본이나 절첩본으로 장정할 것을 전제할 때 나타나는 형식이다. 그런데 天海版은 대부분이 절첩본이긴 하지만 간혹 선장본도 있다.

2.2.2.3 界線 유무

모든 天海版 고활자본에는 계선이 없다. 이 역시 『大藏經』 간행이라는 사업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간혹 나타나는 갑목의 흔적을 살펴보면, 활자의 행간에 활자보다 높이가 낮은 계선을 사용하여 인출되지 않았을 뿐임을 알 수 있다.

2.2.2.4 行數

인관 한 엽에 모두 24행을 배열하였다. 이를 4절하여 6행 절첩본으로 장정한 경우가 있다(『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大般涅槃經』·『大方等大集經』·『摩訶般若波羅蜜經』·『妙法蓮華經』·『維摩詰所說經』·『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 기타 10종은 반

절하여 12행 선장본으로 장정하였다.

2.2.2.5 字數

모두 한 행에 17자를 배열하였다. 이는 『大藏經』 간행이라는 사업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결과로 보인다. 활자의 크기는 대·소 2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자라 할지라도 자수는 동일하다. 판본에 따라서 1종만 사용한 경우도 있다.

예외적으로 『摩訶般若波羅蜜經』의 간기에 사용한 활자는 본문보다 약간 작아서 6행 19자를 배열하였다. 『妙法蓮華經』은 권두 서명에 19자를 조밀하게 배열하여 횡렬이 가지런하지 않다.

2.2.2.6 小註 형식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大般涅槃經』은 판심제에 소자 활자를 사용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소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기타의 판본은 모두 소자를 사용하여 쌍행으로 배열하였다. 자수는 대자와 같은 17자다.

예외적으로 『金七十論』의 경우, 卷上의 권두제 행에 소자를 3행 배열하였다.

2.2.2.7 版口와 版心題 형식

판심에는 함차·판심제·권차·장차 등이 표시되어 있다. 판구는 모두 백구인데, 판심의 상단 가까이에 함차를 표시하는 문자가 있어서 자칫 화구로 볼 수도 있다.

함차는 모두 소자로 되어 있다.

판심제는 대체로 서명이 짧은 경우 본서명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서명이 긴 경우는 약서명을 쓰고 있다(『(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大方等大集經』·『摩訶般若波羅蜜經』·『妙法蓮華經』·『維摩詰所說經』·『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 『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은 판심제 없이 함차 아래에 권차가 이어진다.

판심제의 크기는 대부분이 소자로 되어 있는데, 간혹 소자보다 더 작은 극소자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金七十論』·『大般涅槃經』·『諸經要集』·『增壹阿含經』). 이 경우 권차와 장차도 극소자를 사용하였다.

판심제를 연각하기도 하였는데, 판심제와 권차(“卷上”)를 각각 따로 연각하기도 하고(『金七十論』), 판심제와 “卷”까지 연각한 경우도 있고(『大般涅槃經』·『妙法蓮華經』·『增壹阿含經』), 판심제와 권차(“一”)를 연각하기도 하였다(『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一切經音義』). 이러한 현상은 목색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차는 “卷”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와 “卷” 없이 권차만 표시된 경우가 있다(『(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摩訶般若波羅蜜經』·『日本武州江戶東叡山寬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一切經音義』).

『大般涅槃經』의 경우, 장차의 위치는 제15자를 기준으로 그 위(제3·8·15·20엽)와 아래(제7·13·19엽)에 배열된 차이에 의하여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조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2.2.2.8 魚尾 형식

모두 어미가 없다. 이 역시 『大藏經』 간행이라는 사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결과로 보인다.

2.2.2.9 기타 特徵

(1) 發願文과 刊記

권말에 있다. 발원문은 목판으로 보각한 『妙法蓮華經』을 제외한 모든 판본이 동일하다. 그러나 간기는 간행년만 다를 뿐, 기타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형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6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奉再興	佛說一切經藏
今上皇帝	玉體安穩
東照權現	倍增威光
征夷大將軍左大臣源家光公武運長久	
四海泰平	國家豐饒
佛法紹隆	利益無窮
日本武州江戶東叡山	
山門三院執行探題前毘沙門堂門跡	
大僧正天海願主	

이어지는 간기의 내용과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大乘入楞伽經』·『大智度論』·『悲華經』·『增壹阿含經』 등:

寬永十七年庚辰曆十月十四日
林氏幸宿花溪居士
使工人彫鏤之

2) 『廣弘明集』·『金七十論』 등:

寬永十四丁丑曆十二月十七日
林氏幸宿花溪居士栞行

3) 「弘明集」 등:

寬永十四丁丑曆十二月十七日
林氏幸宿花溪居士栞行

4) 「諸經要集」 등:

寬永十五戊寅曆三月十日
林氏幸宿花溪居士
栞行

5) 「大方等大集經」·「維摩詰所說經」·「集古今佛道論衡實錄」 등:

寬永十五戊寅曆十月三日
林氏幸宿花溪居士
栞行

6) 「妙法蓮華經」의 경우 제8권의 마지막인 普門品25의 제25엽이 목판으로 보각한 발원문과 간기이다. 그 내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奉彫造	佛說一切經藏
今上皇帝	玉體安穩
東照權現	倍增威光
四海泰平	國家豐饒
佛法紹隆	利益無窮

征夷大將軍左大臣源家光公吉祥如意
日本武州江戸東叡山
山門三院執行探題前毘沙門堂大僧正天海願主
正保四年丁亥曆六月十日
經館分職林氏幸宿花溪居士
使剖劖氏而鉸之梓

(2) 書葉 印出 후 粘着

권자본이나 절첩본의 경우, 장정하기 위하여 서엽을 이어 붙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어 붙이는 순서는 서엽 인출 후 이어 붙이거나, 이어 붙인 후 인출하는 방법이 있다.²⁶⁾

「大般涅槃經」·「妙法蓮華經」 등의 경우, 1엽(1판) 24행을 인출한 후 4면으로 접어서 절첩으로

26) 권자본이나 절첩본의 경우, 장식적으로 각 엽을 인출한 후 책지 좌우의 여백 부분을 재단한 다음 이어 붙여서 장정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이러한 장식과 달리 책지를 모두 이어 붙여서 성책한 후 인출한 결과, 접착한 부분의 양측에 문자가 물리는 판본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서영 1> 제2행 참조).

장정하기 위하여 점착한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大般涅槃經』 권25의 경우 모두 20엽을 이어 붙여서 절첩으로 장정하였는데, 이어 붙인 곳의 흔적을 자세히 관찰하면 인출하여 좌우의 여백 부분을 재단한 후 이어 붙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函次

『大方等大集經』은 판심에 표시된 함차가 “位”(장차 1-7) · “讓”(8-15) · “國”(16-22) · “有”(23-30) 등 4종이다. 『大智度論』은 “聖” · “德” · “建” · “表” 등을 쓰고 있다. 이처럼 대형 불경의 경우, 여러 개의 함차를 사용하고 있다.

(4) 예외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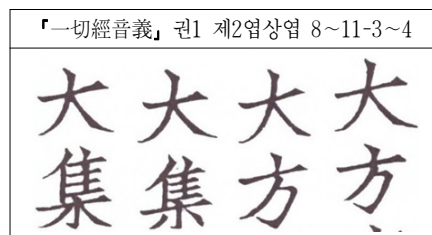
『妙法蓮華經』의 경우, 매 엽마다 제1행 우측 여백의 제9자 위치에 극소자로 인쇄된 “藏經”의 문자가 있다.

3. 天海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모든 天海版에서 전반적으로 동일 문자의 자양은 다소 다르다. 크기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흡사하면서 매우 세련된 수준이다(<사진 1> 참조).



< 사진 1 > 字樣의 일치 여부

3.1.2 刀刻의 痕迹

모든 天海版에서 도각의 흔적은 필획의 윤곽에서 역력하다.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드물게

보인다. 이는 활자를 조성한 후 바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각의 흔적이 필획의 윤곽에서도 교차하는 곳에서도 역력한 경우가 있다(『摩訶般若波羅蜜經』). 간혹 다소 사용한 듯, 문자 필획 윤곽의 도각 흔적이 퇴화한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사진 2> 참조). 많이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一切經音義』 권1 제2엽상엽 10~11-3	『摩訶般若波羅蜜經』 권30 제1엽 5-16·6-3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 印行目錄』 권1 제3엽 1-8·2-6
大大	在佛	蜜藏

<사진 2> 도각의 흔적(윤곽·교차·퇴화)

3.1.3 木理의 有無

대부분 판본에서 목리가 드물게 보인다(『(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廣弘明集』·『金七十論』·『大般涅槃經』·『大方等大集經』·『大乘入楞伽經』·『大智度論』·『摩訶般若波羅蜜經』·『妙法蓮華經』·『悲華經』·『維摩詰所說經』·『一切經音義』·『諸經要集』·『弘明集』). 새로 조성한 활자 이면서 목색을 진하게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리가 진한 목색으로 인하여 잘 보이지 않으나, 드물게 문자에 따라서는 역력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維摩詰所說經』·『增壹阿含經』), 크고 작은 목리가 꾸준히 보이는 경우가 있다(『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 天海版의 다른 판본과 비교하면 목리가 많이 보이는 점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활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목리의 방향이 세로(상하)인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의 권1 제1엽상엽 2-14의 法, 5-1의 訶, 5-13·14의 諸漏, 6-9·13·16의 安慧逮, 9-12·13의 難學, 10-14의 優 등이다. 목리가 가로(좌우)인 경우는 더 많지만, 대표적인 예로 권1 제1엽상엽 4-3의 是, 6-17의 得, 7-7의 所, 9-16의 洹, 11-7·8의 薩摩 등을 들 수 있다(<사진 3> 참조). 이는 활자를 제작할 때 동체를 독립적으로 제작한 후 조각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현존 목활자 실물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 권1 제1엽상엽 6-17·7-7, 5-1·6-16	
得所	訶逮

<사진 3> 목리의 방향(가로·세로)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2.1.2 天海版『大藏經』”에서 출판에 동원된 팀은 약 100팀 정도라고 추정하였다. 이들이 모두 1조(세트)의 활자로 인출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사한 판본 실물에서도 자적에 나타난 서체와 필획의 굵기 등의 특징을 비교하면 최소 3조 이상의 활자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 『廣弘明集』, 『金七十論』 3종의 판면에 나타난 서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각 세련되긴 하였지만, 동일한 활자는 아님을 한눈에 알 수 있다(<사진 4> 참조).

자형 및 필획의 윤곽과 필획 굵기의 균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판본에서 세련되게 필서체의 필의를 살리고 있다.

예외적으로 필획이 약간 굵어지면서 서체가 미세하게 퇴화된 현상이 보인다. 많이 사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신각의 경우도 약간 굵은 필획이 보인다(『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 권3 제20엽하엽 1~3-1~4	『廣弘明集』 권2 제1엽상엽 9~11-1~4	『金七十論』 권상 제1엽상엽 9~11-1~4
何 訶 訶 菩 薩 薩 薩 心 不 摩 不 得	氏 遺 軒 之 籍 已 學 復 還 聞 若 至	復 在 千 更 家 年 來 之 祠 重 法 天

<사진 4> 서체와 필획의 굵기

3.2.2 文字의 美感

필획이 굵은 경우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문자가 안정감 있게 해서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강건한 구양순체의 미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諸經要集』에 나타난 목색의 분위기를 보면 금속활자와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서 목질이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필획 윤곽도 분명하고 목리도 거의 없는 점에서 신조 활자로 보인다.

『一切經音義』에서 간혹 필법도 다르고 필획의 굵기도 다른 문자가 보인다. 이는 필획의 윤곽이

선명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많이 사용한 결과가 아니라 조각할 때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増壹阿含經』에 드물게 일부 필획이 결실된 문자가 보인다.

3.3 木板의 並用

『妙法蓮華經』의 경우 제8권의 마지막인 普門品25의 제25엽을 목판으로 보각하였다. 여기에는 발원문과 간기가 있는데, 그 내용은 “2.2.2.9 (1) 6) 『妙法蓮華經』의 경우”에서 제시하였다. 이 보각 목판은 “正保四年”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간기대로 당시에 판각한 것인지?²⁷⁾ 왜 목판으로 보각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3.4 綜合 評價

天海版의 여러 판본을 살펴보면, 필획이 굵은 판본과 가는 판본이 있다. 서체도 규범화된 해서체를 따르고 있지만, 판본에 따라서는 필획의 시작과 끝 부분의 마감 처리가 달라서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문자의 크기도 약간씩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수준의 조각기술에 의한 활자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은 활자를 조각하는 각자장이 여러 명 동원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활자 역시 복수의 조를 준비하여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大藏經』 인출이라는 방대한 작업량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활자 제작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힘있는 해서체의 미감을 잘 살리고 있는 세련된 수작이다. 상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3종(『廣弘明集』·『大智度論』·『諸經要集』), 기타는 상중급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중급이다.

4. 天海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대부분 판본이 문자의 종행은 매우 가지런하다. 뿐만 아니라 행간의 간격도 균일하다(『(佛說)光讚

27) 판각 년대를 “正保四年”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의 복각본은 저본의 년대까지 그대로 복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川瀬一馬, “誤られたる古板本-原刻・覆刻對照書影,” 『書誌學』 第5卷 第2號(1935. 8), 40-56.; 『書誌學』 第5卷 第3號(1935. 9), 41-46 참조.

般若波羅蜜經」·「廣弘明集」·「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大方等大集經」·「大智度論」·「妙法蓮華經」·「悲華經」·「維摩詰所說經」·「諸經要集」·「增壹阿含經」·「弘明集」).

대체로 가지런하지만, 극히 미세하게 좌우로 치우치거나 굵은 행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金七十論」·「大般涅槃經」·「大乘入楞伽經」·「摩訶般若波羅蜜經」·「一切經音義」). 치우친 정도가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어렵고 밑줄을 그어보아야 겨우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미세하다.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은 하단의 문자가 없는 부분에서 약간 틀어진 곳이 있다(<사진 5> 참조).

모든 天海版에서 비록 계선이 보이지 않으나, 활자 종행의 가지런한 정도로 보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활자보다 높이가 낮은 계선을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절첩본의 경우, 제6행과 제7행, 제18행과 제19행 사이의 행간이 여타의 행간보다 2배가량 넓은 점에서 점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悲華經」·「諸經要集」·「增壹阿含經」은 선장본으로 장정되었을지라도 6행과 7행, 18행과 19행 사이의 행간이 절첩본처럼 넓은 점으로 보아, 절첩본을 전제로 조판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절첩본이던 것을 후대에 선장본으로 개장한 것일 수도 있으나, 판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점은 흔적은 없다.

4.1.2 橫列

문자의 횡렬은 활자가 판면 가득 배열된 곳에서는 자간 거리를 유지하며 맞추고 있어서 매우 가지런하다(「(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廣弘明集」·「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大般涅槃經」·「大方等大集經」·「摩訶般若波羅蜜經」·「弘明集」).

가지런한 중에 극히 미세하게 상하로 굴곡이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다(「金七十論」·「大乘入楞伽經」·「大智度論」·「妙法蓮華經」·「悲華經」·「維摩詰所說經」·「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一切經音義」·「諸經要集」·「增壹阿含經」). 굴곡의 정도가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어렵고 밑줄을 그어보아야 겨우 구분할 수 있을 만큼 미세하다(<사진 5> 참조). 「大乘入楞伽經」 권말의 발원문과 간기에서는 배열된 문자가 적어서 여백이 많아서인지 횡렬이 맞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金七十論」의 권상 제1엽상엽 권두제 행에는 소자를 9자 심을 공간에 쌍행으로 10자를, 제2엽상엽 제7행에도 18자를 심었다. 「摩訶般若波羅蜜經」의 간기에 사용한 활자는 본문보다 약간 작아서 6행 19자를, 「妙法蓮華經」은 권두 서명에 19자를 배열하여 횡렬이 조밀하여 가지런하지 않다.

횡렬이 가지런하지 않은 점에서 활자 동체의 크기가 고르지 않거나, 고르다면 문자를 조각한 위치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一切經音義」의 자간에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면 활자의 크기가 고르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大般涅槃經』 권25 제2엽 5-13~17, 『摩訶般若波羅蜜經』 권25 제1엽 2-13~17,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 권1 제1엽 3-10~14	『金七十論』 권상 제1엽상엽 5~12-7~9
爲四一者親 우 우 좌 什共僧叡譯 좌 우 月盈具辰宿 좌 우	之言言往世沒二有 상 하 상 하 法是竟彼間音慧仙 상 하 하 상 하 是婆即說見闍三人 상 하 상 하

<사진 5> 字跡의 從行과 橫列

4.2 字跡의 安置 角度

대체로 모든 문자가 반듯하게 심어져 있다.

약간 정도 시계 방향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빼돌어진 경우가 드물게 보인다. 예를 들면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 卷1 제4엽하엽 5-14의 於, 권4 제19엽하엽 4-13의 忙, 권6 제9엽상엽 4-13의 誼, 5-13·14의 摩訶 등이다. 『大般涅槃經』의 권25 제2엽 3-14의 切, 4-14의 者 등이다. 『悲華經』의 권3 제3엽상엽 4-14의 聽, 제11엽상엽 3-13의 藐, 제10엽하엽 9-4의 樂, 제3엽하엽 11-15의 海, 卷8 제1엽상엽 4-15·16의 界名, 5-16의 爲 등이다(<사진 6> 참조).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에는 약간씩 빼돌어진 문자가 매 엽에서 2~3개 정도 보인다. 『一切經音義』는 매 엽에서 역력한 경우가 2개, 약간의 경우가 10개 정도로 다소 많이 보인다. 그러나 두드러진 경우는 거의 없을 만큼 바른 편이다.

『大般涅槃經』 권25 제2엽 3~4-13~15	『悲華經』 권8 제1엽상엽 4~5-15~17
以一者何苦	在界爲名四妙

<사진 6> 字跡의 安置 角度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の 水平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문자가 선명하게 보일만큼 잘 인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활자의 형태가 동체의 크기는 약간 차이나지만 육면체의 방정한 활자로 보인다.

다만 기울어지게 식자되었거나 문자면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드물게 보인다. 예를 들면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의 권1 제1엽상엽 7-2의 和, 권3 제1엽상엽 5-2의 極, 제12엽상엽 7-1의 無, 9-1의 號, 권5 제4엽하엽 3-8의 佛 등이다. 『悲華經』의 권1 제7엽상엽 8-1의 彼, 제9엽상엽 8-1의 號, 제21엽상엽 7-1의 薩, 권4 제1엽상엽 8-1의 乃, 11-17의 祇, 권7 제7엽상엽 9-2의 手, 권8 제14엽상엽 9-1의 間, 권10 제20엽상엽 6-15의 利 등이다. 『日本武州江戶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에는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4~5개 정도, 일부 연한 경우가 2~3개 정도 보인다. 『一切經音義』는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소자에서 3개 정도, 일부 문자가 거의 인식하기 어려울 만큼 연한 경우가 7개 정도 보인다. 예를 들면 권1 제2엽상엽 3-14의 𣎵, 8-7의 華 등이다(<사진 7> 참조).

4.3.2 印出面의 水平

天海版의 전반적인 묵색은 부분적으로 아주 약간의 농담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균일하여 목판과 견줄 만하다(『金七十論』·『大方等大集經』·『大乘入楞伽經』·『大智度論』·『摩訶般若波羅蜜經』·『妙法蓮華經』·『維摩詰所說經』·『諸經要集』·『增壹阿含經』·『弘明集』). 활자의 높이도 균일하고 사방이 방정한 육면체로 보인다.

다만 간혹 묵색이 진한 경우와 연한 경우가 공존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廣弘明集』·『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大般涅槃經』·『大乘入楞伽經』·『一切經音義』). 예를 들면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의 권1, 제1엽 제3~5행 제1~3자 등이다(<사진 7> 참조). 『廣弘明集』의 권10 제25엽하엽 8-15의 卽, 권11 제34엽하엽 9-9~13의 5개 문자, 권13 제18엽상엽 11-7의 九, 권14 제1엽하엽 6-11의 厚, 권15 제22엽하엽 3-12의 感, 4-15의 更, 권26 제43엽상엽 6-16·17의 聚六 등이다. 권29 제31엽~제34엽에서도 약간의 농담 차이가 보인다. 『大般涅槃經』의 권25, 제72엽 제3~6행 제4~8자 등이다. 『悲華經』의 권1 제11엽상엽 3-2의 復, 권3 제8엽상엽 10-6의 并, 권5 제17엽하엽 1-4의 記, 권6 제6엽상엽 4-2의 量 등이다. 『日本武州江戶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은 농담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농2 대 담1 정도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권3 제17엽의 장차 “十七” 중 “十”이 거의 안 찍혀서 자칫 부주의하면 “七”처럼 보인다.

이처럼 天海版 중에서는 후반으로 갈수록 농담 차이가 점차 커지기는 하지만, 이들도 다른 판본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묵색 농담이 고른 편이어서 목판에 견줄 만큼 균일하다.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 권1 제1엽상엽 7-2, 「一切經音義」 권1 제1엽상엽 3-14·8-7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 권1 제1엽상엽 3~5-1~3
和 恐 華	訶 聞 光 比 如 讚 丘 是 品

<사진 7>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모든 판본이 상하 광곽은 있지만, 좌우 광곽이 없어서 활자본의 특징으로 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꼭지점이 없다.

「大乘入楞伽經」은 상하 광곽을 서너의 서배에까지 보일 만큼 길게 하였다. 「悲華經」은 간혹 광곽이 활자의 문자면보다 높거나 낮아서 문자 또는 광곽이 연하게 인출된 곳이 있다. 「一切經音義」에는 광곽이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인출된 경우가 드물게 보인다.

조립식 광곽에 조임식 조판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일부 판본에 잠목 형태로 남은 흔적을 분석하면 짐작이 가능하다. 「摩訶般若波羅蜜經」은 광곽 하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광곽 하방 21mm 지점에 가로 3mm×세로 4mm의 고정용 나무못으로 광곽을 지지하고 있다.

4.5 기타

4.5.1 界線 격자

모든 판본에 계선이 인출되지 않아서 판단이 불가능하다. 다만 종행의 가지런한 정도로 보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활자보다 높이가 낮은 계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판본의 여백 부분에 잠목으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계선의 폭은 1.3~1.4mm(「悲華經」 권2 제13엽상엽 9, 10행간 1-2자 부분), 1.4~1.6mm(「一切經音義」), 1.5mm(「大方等大集經」·「大乘入楞伽經」), 1.7~1.9mm(「弘明集」), 1.8mm(「大般涅槃經」·「大般涅槃經」), 1.8~2.0mm(「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諸經要集」·「增壹阿含經」), 2.0mm(「大智度論」)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大智度論」의 권73 제25엽하엽(말엽)의 문자가 끝난 곳의 계선 폭은 6mm이다. 끝 부분이라 하여 철저하게 마무리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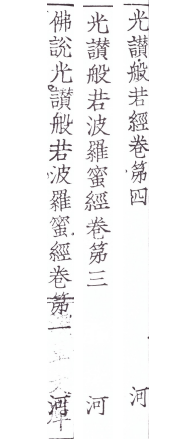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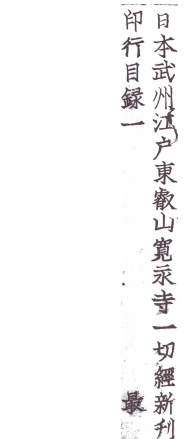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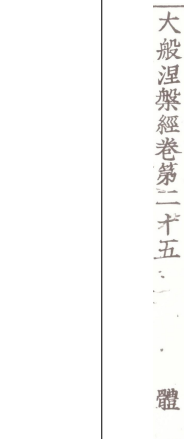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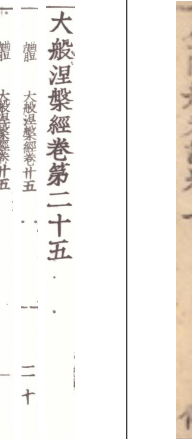
활자를 배열하는 공간인 계선과 계선 사이의 행폭은 14mm이다(「大般涅槃經」·「諸經要集」·「弘明集」). 이는 활자 동체의 가로 폭일 수 있다. 그러나 문자의 가로 폭은 아니다. 왜냐하면 문자를

활자 동체의 문자면에 가득 차도록 조각하지 않고 사방에 약간의 여백을 두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부분 고헌자가 이와 같다.

4.5.2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실사 판본에서는 문자가 전도된 경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문자의 탈락은 실수인 경우가 매우 드물게 보인다. 『大方等大集經』은 권2 제20엽의 장차에 “二”가 탈락되어서 가필하였다. 이밖에 탈락의 범주에 해당되지만, 교정 실수였는지 아니면 탈락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은 권3의 권말제와 권4의 권두제 등 여러 곳에서 “佛說”을 생략하였다. 권4의 권두제는 약서명을 쓰기도 하였다. 그 결과 소장처에 따라서는 목록의 표목에 “佛說”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였다.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은 권1 권두제의 권차에 “卷第”를 생략하고 “一”만 배열하였다. 권2 이하의 권두제와 모든 권말제에는 생략하지 않았다. 또한 권5의 권말제에는 “終”을 추가하였다. 『大藏經』은 모든 불경에 함차를 표시하는데, 天海版은 권두제 하단·관심 상단·권말제 하단의 3곳에 함차를 표시하는 문자가 있다.²⁸⁾ 그런데 『大般涅槃經』 권25의 권두제 하단과 관심에는 “體”가 있는 반면에 권말제에는 없다(<사진 8> 참조). 『弘明集』 권1의 권두제 하단에는 “集”이 없는 반면에 관심과 권말제에는 있다. 권8에는 권두제에 하단에 “墳”이 있는데 반하여 권말제에는 없다.

『(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	『大般涅槃經』	고려 『再雕大藏經』
			

<사진 8> 字跡의 脫落

28) 참고로 『高麗大藏經』은 권두제의 하단에 함차 표시가 있고, 권말제에는 없다. 『再雕大藏經』의 경우 경판에는 각 불경의 제2판부터 경문이 끝난 다음 행에 소자로 서명, 권차, 장차, 함차가 관각되어 있다(<사진 8> 참조). 성책할 때에는 이것을 재단하여 버리므로 판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로 미루어 『初雕大藏經』의 경우에도 경판에는 함차 표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4.5.3 校正의 失手

대부분의 판본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大智度論』은 권91의 권두제 아래 권차가 “九十九”로 잘못되어 있다. 『一切經音義』는 권22 제11엽부터 제29엽까지의 장차를 “十二”부터 “三十”으로 오식하여 굵어낸 후 다시 적어서 교정하였다.

4.6 綜合 評價

조판 요소에 나타난 현상을 종합하면 활자의 형태는 크기가 약간 다르지만 방정한 육면체로 보인다. 조판 기술 역시 목판본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매우 고명한 수준이다.

상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5종(『(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廣弘明集』·『金七十論』·『大乘入楞伽經』·『大智度論』), 상하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1종(『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 기타는 상중급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중급이다.

5. 天海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5.1 墨色の 濃淡

5.1.1 全體의 墨色

天海版 『大藏經』의 모든 판본이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매우 균일하다.

5.1.2 葉 간의 濃淡差

전반적으로 진한 묵색의 농담이 별 차이 없이 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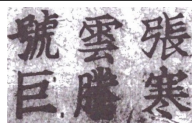
다만 약간 더 진한 엽이 드물게 있거나(『(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의 권1 제19엽, 『廣弘明集』의 권11 제26엽, 권13 제9엽, 권24 제19엽하엽, 제25엽, 권29 제2엽, 제42엽, 권30 제27엽), 약간 연한 엽이 있는 경우가 있다(『廣弘明集』의 권1 제16엽, 권5 제4엽 제5엽, 권29 제 21엽). 『一切經音義』는 부분적으로 유독 연한 엽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서 농담차가 커보이게 한다. 『諸經要集』은 한두 엽에서 강하게 인출한 결과 다른 엽보다 진하게 보인다.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번짐

묵즙이 번진 엽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묵즙에 아교보다 연매 재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혼합하여 농도를 제법 진하게 조제하여 인출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거의 예외적으로 『悲華經』의 권3 제15엽하엽 4-1의 善 등 번진 문자가 매우 드물게 보인다. 반대로 권4 제8엽상엽 1-1의 濁, 권10 제6엽상엽 4-11·12의 此四, 5-11·12의 界在, 6-11·12의 生行 등은 묵즙이 충분히 도포되지 않았다. 권10 제6엽상엽의 6개 문자는 이웃하고 있는 점에서 인출장의 부주의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維摩詰所說經』의 경우, 권하에서 관심제 소자의 일부(維의 糸 부분만)에 약간 번진 경우 등 3개 정도 보인다.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에는 3~4엽 당 1개 정도 약간 번진 문자가 보인다. 『一切經音義』에는 경미한 정도가 매 책에서 2엽 정도 보이면서, 묵색이 진하여 번진 듯한 문자도 매우 드물게 보인다(<사진 9> 참조).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 目錄』 권1 제1엽 3~5-16~17	『一切經音義』 권1 제2엽하엽 3-9좌, 6-9좌, 6-17우
	

<사진 9> 墨汁의 번짐

5.2.2 墨汁의 솔림

묵즙의 솔림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金七十論』에는 묵색이 진한 부분에서 약하게 솔림 현상이 보인다. 『諸經要集』에는 필획 간 묵즙이 솔려서 진하게 찍힌 경우가 간혹 보인다.

『摩訶般若波羅蜜經』·『維摩詰所說經』의 권중과 권하·『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에는 드물게 아주 약간 측면 반영된 문자가 보인다. 『一切經音義』에는 문자의 필획에 따라서 착묵 상태가 진하거나 연한 경우가 간혹 보인다.

5.2.3 字跡의 깨짐

문자의 자적이 깨진 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술 수준이 우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착묵에 별 어려움이 없는 목질 활자에 묵색을 진하게 쓴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상하 광곽은 잘 인출되어 있지만, 드물게 양 끝 부분이 인출되지 않은 곳이 있다. 이는 묵즙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출장의 습관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5.3 雜痕과 雜墨

잡묵 현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廣弘明集』·『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妙法蓮華經』).

잡묵이 미량 간혹 드물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이 인출할 때의 움직임 현상에 의하여 인출을 의도하지 않았던 계선이 나타난 흔적이다(『金七十論』·『大般涅槃經』·『大方等大集經』·『大乘入楞伽經』·『大智度論』·『摩訶般若波羅蜜經』·『悲華經』·『維摩詰所說經』·『日本武州江戶東叡山寬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諸經要集』·『增壹阿含經』·『弘明集』).

크고 작은 잡묵이 간혹 보이기도 한다(『一切經音義』).

5.4 二重 印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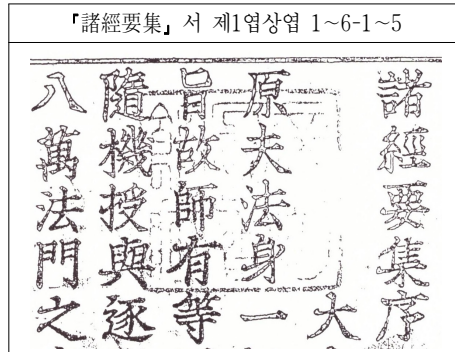
대부분의 판본에서 이중 인출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

『日本武州江戶東叡山寬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에서 문자 1개가 보이고, 의심스러운 곳은 2~3곳 보인다. 『一切經音義』의 3엽 정도에서 몇 개의 문자가 보인다. 『弘明集』은 1~2곳이 보인다.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인출의 방향과 강도를 살피기 위하여는 책지의 문자가 반영되어 있는 인출면보다 배면을 살피면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天海版은 책지가 두꺼워서인지 인출한 흔적은 적지 않게 관찰되지만, 인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먹물이 밀린 자국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묵색이 진한 문자를 자세히 관찰하면, 힘껏 인출한 결과로 책지에 반영되어 있는 요철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大般涅槃經』·『諸經要集』). 『大方等大集經』의 책지 배면을 살피면, 종이 섬유가 일어날 정도로 힘껏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자면의 묵색은 측면 반영이나 솔림 현상 없이 깨끗이 인출되었다. 『維摩詰所說經』과 『諸經要集』은 문자의 윤곽이 분명하게 찍힐 정도로 힘껏 인출하였다(<사진 10> 참조).



<사진 10> 印出의 强度

5.6 着墨의 均整度

전반적으로 착묵 상태가 균일하다. 목판본으로 착각할 만큼 일본 고허자판에서 보기 드문 최고의 기술 수준을 보이고 있다.

『日本武州江戸東叡山寛永寺一切經新刊印行目錄』·『一切經音義』에서는 약간의 균일하지 못한 곳이 보인다.

5.7 기타

책지의 천두 여백은 16~20mm(『弘明集』), 17mm(『大乘入楞伽經』·『一切經音義』), 18mm(『摩訶般若波羅蜜經』), 20mm(『增壹阿含經』), 23mm(『大方等大集經』), 24mm(『維摩詰所說經』) 등이다.

『大智度論』의 천두는 여백이 충분하지 않아서 책지의 끝이 재단되지 못하고 보이는 엽이 많다. 예를 들면 권47 제16 20엽, 권48 제5·6·7·11, 엽, 권49 제6·8·10·17엽, 권50 제3·5·10·12-14·16·18엽, 권52 제21·22엽, 권53 제17·19엽, 권54 제17·19·22엽, 권61 제27·28·30·32·33엽, 권62 제4·5·22~25엽, 권63 제1엽, 권66 제10·12·16엽 등이다.

지각의 여백은 19mm가 보인다(『維摩詰所說經』). 『大智度論』은 지각의 여백도 빠듯하여 책지의 끝이 재단되지 못하고 보이는 엽이 많다. 예를 들면 권78 제1·2엽, 권91 제2·4·5엽, 권92 제8엽 등이다. 이밖에도 천두와 지각에서 종이발로 떠낸 가장자리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²⁹⁾

29) 일본 수공엽 종이의 섬유결을 자세히 관찰하면, 섬유가 가로 세로로 엇갈려 엮인 듯한 경우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섬유결이 한쪽 방향으로 가지런한 편이다. 이는 지장에서 종이발로 종이 섬유를 뜯 때, 전후좌우로 물질을 고르게 하지 않고 전후 또는 좌우의 한쪽 방향으로만 물질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5.8 綜合 評價

天海版『大藏經』의 대부분 판본에 사용한 책지가 두껍고 질겨서 힘껏 인출한 흔적이 적지 않게 관찰된다. 또한 묵즙도 진한 묵색을 사용한 현상이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색이 번진 엽은 물론 번진 문자도 드물고, 쏠림 문자도 거의 없는 점에서 인출 기술 수준이 매우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4종(『(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廣弘明集』·『大乘入楞伽經』·『大智度論』), 상하급은 3종(『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悲華經』·『一切經音義』), 기타는 상중급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중급이다.

6. 天海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天海版의 활자 인쇄 기술은 조각술·조판술·인출술 등 모든 면에서 목판본으로 착각할 만큼 일본 고활자판에서 보기 드문 최고의 수준이다. 다만 후기로 갈수록 활자를 많이 사용하여서인지 아주 약간 낮아진다.

이처럼 서품이 우수한 판본을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사업을 주관한 天海의 철저한 사전 계획의 결과로 보인다. 즉 天海는 이미 활자 인쇄의 특징과 기술적 요소를 파악하여『大藏經』간행 계획 단계부터 미리 철저하게 설계하고 준비한 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에 활자 인쇄 기술이 수입된 이후,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숙련 단계에 이른 결과로도 보인다.

상상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4종(『(佛說)光讚般若波羅蜜經』·『廣弘明集』·『大乘入楞伽經』·『大智度論』), 상하급은 2종(『金剛薩埵說頻那夜迦天成就儀軌經』·『一切經音義』), 기타는 상중급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상중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7. 結 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天海版이란 慈眼大師 天海가 江戸 시대 초기인 寛永14년(1637)부터 慶安 원년(1648)까지의 12년간에 걸쳐서, 東京 上野 東叡山 寛永寺를 거점으로 간행한 665函, 1453部, 6323卷의『大藏經』을 지칭한다.

판식 상의 특징은 상하단변, 좌우무변, 무계, 1판 24행 17자, 小註雙行이다. 판심은 白口, 합차, 판심제, 권차, 장차로 구성되어 있다. 판심제는 연각활자를 사용하였다. 이를 반절 선장본 또는 4절 절첩본으로 장정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자양이 일치하지 않고 도각의 흔적이 역력하여 목활자임을 알 수 있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함은 물론, 서체의 미감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 우수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이 매우 정연하다. 빼뚫어진 문자는 매우 드물고, 墨色 濃淡은 매우 균일하다. 교정도 충실하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면서도 농담 차이가 적고, 墨汁의 번짐과 잡묵 그리고 이중 인출 등이 매우 드물 만큼 균정한 수준이다. 기술 수준은 상중급.

(5) 전반적인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일본의 고향자판을 대표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상중급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京都府立總合資料館圖書部. 『京都府立總合資料館貴重書目録』. 京都: 京都府立總合資料館, 1971.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貴重書蒐選圖録解題』. 東京: 汲古書院, 1997.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閱覽카드目録』. 東京: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

慶應義塾圖書館. 『慶應義塾圖書館藏和漢書善本解題』. 東京: 慶應義塾圖書館, 1958.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録』. 東京: 汲古書院, 1990.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録』.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7.

(日本)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 『新編帝國圖書館和古書目録』.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內閣文庫.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録』.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內閣文庫.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録(上・下)』.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內閣文庫.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録』.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內閣文庫. 『內閣文庫漢籍分類目録』.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大谷大學圖書館. 『大谷大學圖書館所藏貴重書善本圖録: 佛書篇』. 京都: 大谷大學, 1998.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5.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78.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漢籍分類目録』. 東京: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 1973.

-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編纂委員會.『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東京:東京大學總合圖書館,1995.
-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東京:東洋文庫,2000.
- 東洋文庫.『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經部(東洋文庫之部)・史部・子部』.東京:東洋文庫,1978,1986,1993.
- 東洋文庫.『岩崎文庫和漢書目錄』.東京:東洋文庫,1934.
- 東洋文庫.『漢籍分類目錄:集部(東洋文庫之部)』.東京:東洋文庫,1967.
-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東京:東洋文庫,1967.
- 藤堂祐範.『淨土教古活字版圖錄』.京都:藤堂祐範,1934.
- 松永知海.“天海版一切經目錄.”『印度學佛教學研究』44,2(1996.3).
- 松永知海.『東叡山寛永寺天海版一切經目錄』.佛教大學松永研究室,1999.4.
-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天理圖書館稀書目錄:和漢書之部第一二三四』.天理:天理大學出版部,1940,1951,1960,1998.
- 天理圖書館.『古活字本目錄:附年間主要増加和漢書目』.天理:天理大學出版部,1961.
- 天理圖書館.『善本圖錄』.天理:天理大學出版部,1997.
- 天理圖書館.『天理圖書館古義堂文庫目錄』.天理:天理大學出版部,1956.
- 後藤憲二.『寛永版書目并圖版』.武藏村山:青裳堂,2003(日本書誌學大系91).

2. 저술·논문류

- 寛永寺 教化部.『寛永寺』.東京:東叡山 寛永寺,1993.
- 寛永寺.『慈眼大師全集』.東京:寛永寺,1916.
- 渡邊守邦.『寛永寺藏天海版木活字を中心とした出版文化財の調査・分析・保存に関する総合的研究』.2002.
- 東京都 教育廳 生涯學習部 文化課.『寛永寺及び子院所藏文化財總合調査報告書(上) 石造遺物聖教典籍篇』.東京:東京都 教育廳 生涯學習部 文化課,1999.
- 瀧善成.“天海版・鐵眼版重刻・補訂-特大般若經-.”『佛教史研究』5(1971.3).
- 三井田妙久.“宗存版木活字について.”『叡山學院研究紀要』23(2001.3).67-83.
- 松永知海.『影印東叡山寛永寺天海版一切經願文集』.佛教大學松永研究室,1999.3.
- 水上文義.“天海版一切經木活字の特色.”『印度學佛教學研究』제51권 제1호(2002.12).211.
- 日本1883年京都北川宇兵衛刊本『三部妙典』.
- 滋賀縣教育委員會事務局文化財保護課.『延曆寺木活字關係資料調査報告書(本編)』.大津:滋賀縣教育委員會,2000.
- 齊藤彦松.“宗存版の研究.”『同志社大學圖書館會紀要』第3輯(1960.12).5-26.

書誌學研究 第76輯(2018. 12)

曹炯鎭,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25(2003. 6). 369-406.

曹炯鎭, “日本 天海(Tenkai)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2018년 한국서지학회 추계 공동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8. 11). 59-96.

川瀨一馬, “誤られたる古板本-原刻・覆刻對照書影.” 『書誌學』 第5卷 第2號(1935. 8). 40-56.; 『書誌學』 第5卷 第3號(1935. 9). 41-46.

川瀨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共立社, 1967.

<서영> 日本1883年京都北川宇兵衛刊本『三部妙典』중『佛說阿彌陀經』 제16엽(판 크기: 18.7×8.0cm).

